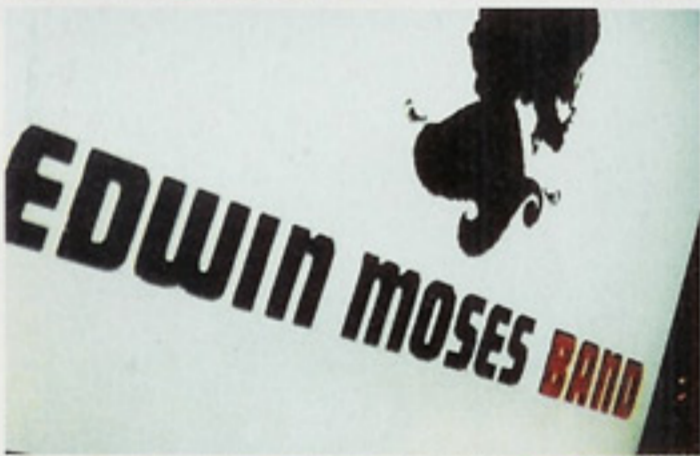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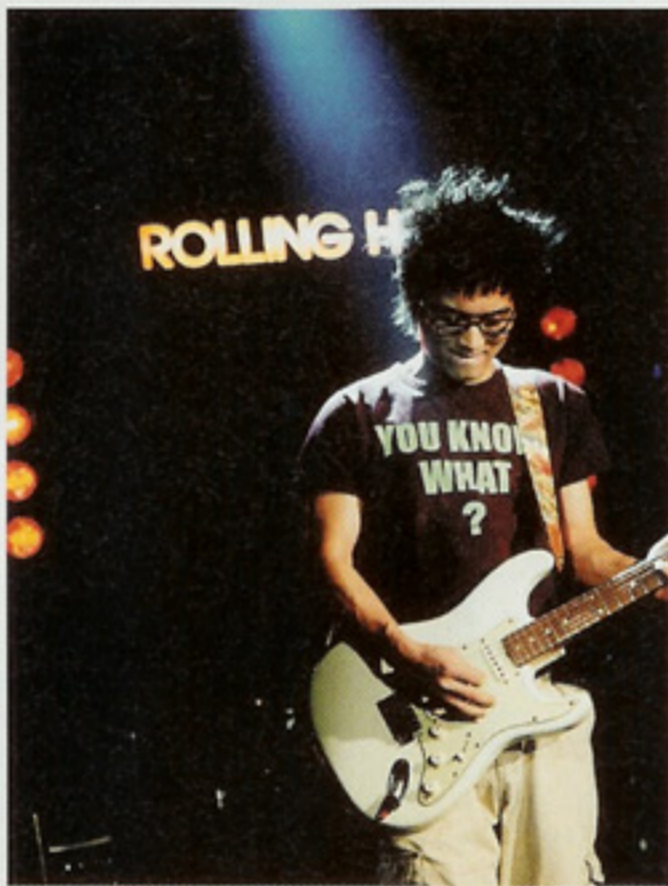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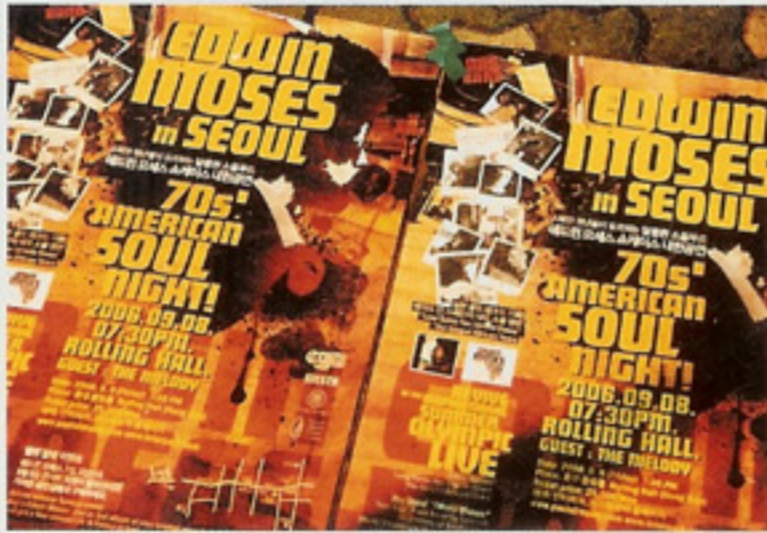
Groove Night With Strangers!

# EDWIN MOSES In SEOUL @ Rolling Hall & Pastel Music



지난여름, 난생 처음 스페인 요리를 먹었다. 같은 유럽권이라 해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처럼 익숙한 것이 아니기에 맛을 보기 전 '이거 괜찮을까' 하며 긴장했었다. 하지만 쌀을 주재료로 한 스페인의 전통 요리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음식이었다. 밤비에 늘어붙은 누룽지까지 굶어먹었던 정도였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 난생 처음 스페인 밴드를 만났다. 스페인 시에스타 레이블의 에드윈 모세스(Edwin Moses)가 한국에서 앨범을 발매한 것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언 것. 그들을 만나기 전, 스페인 요리를 처음 맛볼 때와 비슷한 긴장감이 생겼다. 영국도, 미국도 아닌 스페인 밴드의 음악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쿠스틱과 일렉트로닉을 넘나들며 '처연하거나 귀엽거나'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밴드 멜로디(The Melody)가 게스트로 먼저 무대에 서서 에드윈 모세스를 환영했다. 드디어 그들이 등장! 성가대 유니폼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의상 같기도 한 긴 원피스에, 맨발 처림으로 나타난 그들을 보며 사실 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곧 시작된 그들의 연주는 부담스러운 복잡과 달리 아주 익숙하게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에드윈 모세스는 이번에 발매된 3집 (The Gospel African Years) 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을 논스톱으로 관객에게 선사했다. 신기한 건,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모두가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었다는 것. 심지어 처음 들어본 노래의 후렴구를 함께 따라 부르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일어났다. 기자가 스페인 요리와 스페인 밴드의 상관관계(억지가 다분한)를 떠올린 건, 그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던 그 순간이었다. 낯설지만 익숙한 그 느낌. 처음 만난 에드윈 모세스와 함께 오래 전부터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음악으로 대화를 나누며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Who is EDWIN MOSES? 에드윈 모세스는 400m 허들의 올림픽 챔피언이자 1970년대 미국 아프로 문화의 아이콘. 그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해 스페인 시에스타 레이블의 젊은 프로듀서인 페드로 비길(Pedro Vigil)과 파블로 에레아(Pablo Errea) 그리고 술 가수인 루이 나바로(Luigi Navarro)가 에드윈 모세스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핑키하고 로맨틱한 음악을 발표했다. 전성기 시절의 모타운 사운드를 연상케 하는 이들의 음악은 술을 즐겨 듣는 리스너와 인디 팝, 시에스타 레이블의 팬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feel the live MUSIC!"  
**truly madly deeply** editor\_임유미 photographer\_이른아름